

〈제 757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2023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9일 서울 롯데 타워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올해 초 전담 부서를 ESG공헌부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해 문화예술 후원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춰 인증요건을 충족했으며, 기부금 심의 시스템과 중장기적인

문화사업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후원사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은 “예향의 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광주은행이 기울였던 그간의 노력이 공신력 있는 제도를 통해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융을 넘어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광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립 55주년 기념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서울 63스퀘어에서 창립 55주년을 맞아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엄종대(제8대), 정태석(제9대), 송기진(제10대), 김장학(제11대), 김한(제12대), 송종욱(제13대) 광주은행장이 참석했으며 광주은행의 지난 55년을 회고

하고,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조언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역대 은행장님들의 뒤를 이어 지역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역 대표은행의 소명임을 가슴 속 깊이 품고, 지역민과 고객님들께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수험표 꼭 지참하세요" 수험생 할인 이벤트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자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본인의 수험표와 당일 구매영수증을 챙겨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연결통로에 자리한 사은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광주신세계 이동훈 대표는 “수능이란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고생한 수험생들이 즐겁고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할인과 사은품 증정 등을 기획했다”며 “광주신세계는 수험생들이 희망찬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고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AI·미래차 소부장 등 신경제지도 구축 최선”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은 "작년 11월 취임 이후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기업의 아픔과 불편함을 해결하고 오롯이 기업인들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의 잘못된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주마등 처럼 지나간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그는 "기존 차체·의장 중심이던 지역 자동차 산업에 자율주행차 부품을 더해 미래차 전환을 위한 완결형 밸류체인이 구축되고 지역 자율주행차 부품 산업육성을 위한 소부장 클러스터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TP는 지역산업을 리딩하는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며 “우리지역이 글로벌산업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펼쳐 보이며 전세계적으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광주학생 안전짱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양정열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4일 광주 동신중학교에서 ‘찾아가는 광주학생 안전짱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광주광역시청,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이 참여해 동신중학교

재학생 약 47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퀴즈를 통해 쉽고 재밌게 안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병원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개소 6주년 심포지엄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최근 개소 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된 통합치료센터는 최적의 시기에 최고의 치료를 펼칠 수 있도록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 분야별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12병상 규모의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과 45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은 전국 최고수준이다.

김윤하 통합치료센터장은 “필수 의료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필수 불가결한 의료 서비스로서 이 중 분만은 모든 사회경제 원동력이 되는 기본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 시행 예정인 분만 수가 인상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지원 인상 등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 지역 노년층에 의료 물품 지원



전남대학교병원(원장 안영근)이 광주시 북구청과 연계해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노인 및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위해 의료 물품 전달과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지난 1일과 10일 광주 북구 양산동 시민 종합사회복지관과 동림동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온열찜질기와

파스 등을 전달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꾸준한 노년층 증가로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의료 및 돌봄 수요 역시 급격한 증가 추세”라며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 김홍연 한전KPS 사장, 서비스경영 최고경영자상 수상 영예



한전KPS 김홍연 사장이 17일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주관하는 '서비스 엑셀런드 어워드(Service Excellence Award)'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Service Excellence Award’는 서비스경영 발전에 기여한 경영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해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매년 학술대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발전정비 시장 환경변화 속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가치 창출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 대국민 제안·에너지 전문가 자문 확 늘려



발전·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해가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경영정책 자문 위원회를 분과별로 운영하면서 올해는 전문가

위원을 전년 대비 50%가량 늘렸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자문위원회는 회사의 핵심 혁신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와 산학,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도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 협력사업을 통해 10개 회사를 지원했으며 관련 민간 기업 근로자 330여 명의 원전정비 자격평가도 도왔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한전KPS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으로서 나아갈 것"이라며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시책에 더해 새로운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

◆ 도시가스 고객 초청행사 개최



해양에너지는(대표 정희) 지난 9일 회사 우수고객 30여명과 함께 통영 천연가스 인수기지를 방문해 '도시가스 고객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도시가스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해오던 도시가스 고객 초청행사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다시 진행됐다. 행사는 광주전남 권역 내 도시가스 우수고객과 산업체 고객 30여명을 대상으로 통영인수기지 견학과 회사 추진 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고객과 함께하는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고객과 마주하는 다양한 행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1628회 금요조찬포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리

(박현도 교수)

1628회 금요조찬포럼은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를 초청하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리」를 주제로 전쟁의 원인과 앞으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인도에서 미국, 사우디, 인도, UAE, EU 등과 함께 인도와 아라비아만을 연결하는 경제회랑에 MOU를 체결하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UN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이 없는 지도를 들고 나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하마스의 역린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습격합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바라볼 때 조심해야될 게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통제된 정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내용만 보도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전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니까 서방언론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켰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헤즈볼라 확전입니다. 전선이 한번에 2개가 열리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급파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호르무즈해협의 수입라인을 지키기 위해 군함 6척을 급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확전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확전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을 가장 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이란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절 때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도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내년 대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참전하면 미국도 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럼 미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진행해야하는데 미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2~3주 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이 여론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3주안에 전쟁을 끝내라고 말합니다. 미국 유권자들 중 민주당 지지자의 80%, 공화당 지지자의 56% 젊은 층들이 제노사이드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속한다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중동은 현재 화약고이자 새로운 시장입니다. 사우디에서 스포츠, 콘텐츠, 제조업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경쟁자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경충 회원 분들도 중동에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1. 경제 동향

◆ 경총, 「최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발표 (11.14)

- 경총이 전문가 2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과반수는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

*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① (국회 입법 활동 평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5%로 가장 높았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5%로 집계됨.

② (경쟁국과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수준 비교) 응답자의 49.5%가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 중국, 일본)보다 높다’고 답변함. 그 외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38.5%,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12.0%로 집계됨.

③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 응답자의 45.5%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복수응답)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지적함.

④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이유) 응답자의 42.5%가 역대 정부에서 규제혁신이 실패한 이유(복수응답)로 ‘기득권 세력의 규제혁신 반대’를 지목함.

⑤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58.0%)이 가장 높게 집계됨.

◆ 통계청, 「2023년 10월 고용동향」 발표 (11.15)

- 2023년 10월 취업자는 2,87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6천명(1.2%) 증가

※ 취업자는 2021년 3월(31만 4천명) 이후 32개월 연속 증가.

Ⅲ. 노동경제동향

- (산업별)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0만 4천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만 6천명), 정보통신업(7만 5천명) 등의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제조업(△7만 7천명), 교육서비스업 (△4만 4천명), 부동산업(△2만 6천명) 등의 취업자는 감소

※ 도매 및 소매업은 1만 1천명 증가하여 2019년 6월(△4만명) 이후 5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연령별) 60세 이상(33만 6천명), 30대(11만명), 50대(5만 1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7만 6천명), 40대(△6만 9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9.7%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실업자는 6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천명(△9.5%) 감소

- 실업률은 2.1%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5.1%로 전년 동월대비 0.5%p 하락

○ 전체 체감실업률*은 8.1%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5.2%로 전년동월대비 2.3%p 하락

*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개념

○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명(△0.8%)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3천명(△12.4%)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6천명 증가한 223만 8천명을 기록했고, 구직단념자는 전년 동월대비 6만명 감소한 35만 5천명 기록

◆ 한국은행,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11.14)

○ 2023년 10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9.5% 하락)

※ 수출물가는 2023년 7월(0.1%) 이후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

▸ 최근 수출물가 상승률 추이(% , 전월대비) : △3.2('23.6)→ 0.1(7)→ 4.2(8)→ 1.8(9)→ 0.5(10)

Ⅲ. 노동경제동향

* 원/달러 평균환율(원) : 1,329.47('23.9월)→ 1,350.69('23.10월) [전월대비 1.6% 상승]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0.7% 하락(전년동월대비 15.3% 하락)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이 내렸으나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9.4% 하락)

○ 2023년 10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광산품이 내렸으나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10.2% 하락)

* 두바이유(월평균, 달러/bbl) : 93.25('23.9월)→ 89.75('23.10월) [전월대비 3.8% 하락]

※ 수입물가는 2023년 7월(0.2%) 이후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

▸ 최근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 전월대비) : △3.9('23.6)→ 0.2(7)→ 4.2(8)→ 3.0(9)→ 0.5(10)

- (원재료)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하락(전년동월대비 15.2% 하락)

- (중간재)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9% 상승(전년동월대비 8.7% 하락)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0.8% 상승했고, 소비재는 전월대비 1.0% 상승 (자본재 전년동월대비 2.8% 하락, 소비재 5.2% 하락)

◆ 현대경제연구원, 「세계 2차전지 공급망 구조 현황과 시사점」 발표 (11.14)

○ 2023년 11월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2차전지 공급망 구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 주요 내용 〉

○ (2차전지 교역) 2022년 기준 세계 2차전지 수출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 및 독일의 대중국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Ⅲ. 노동경제동향

- 2022년 리튬이온배터리의 전세계 수출국 순위는 중국(50.3%), 폴란드(8.6%), 한국(7.3%), 헝가리(7.0% 등 순으로 나타남.
 - ※ 세계 2차전지 수출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8.4%) 대비 11.9%p 상승
- (2차전지 생산기지) 전세계 2차전지 3대 생산기지는 중국, 미국, 독일로 전세계 2차전지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이 대부분(73%, '23.5월)을 차지.
 - ※ S&P는 향후 2030년에도 중국이 전세계 2차전지 생산의 약 57%를 차지하여 여전히 1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2023(1~8월) 전기차용 2차전지 판매 기준 세계 Top 10 내 중국기업 비중은 63%*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비중을 압도.
 - * CATL 36.8%, BYD 15.9%, CALB 4.7%, Guoxuan 2.1%, Sunwoda 1.4%, Eve 2.1%(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2차전지 총사용량 기준, SNE 리서치)
- (2차전지 핵심광물 주도권) 음극재로 사용되는 흑연은 전세계의 65.4%가 중국에서 생산될 뿐아니라 매장량도 15.8%로 튀르키예 27.3%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다만, 핵심광물들의 제련 및 셀(Cell) 가공 의존도는 70% 이상이 중국에 편중되 있음.
- (전기차 주도권도 중국 중심) 2023년 기준 전세계 전기차(EV) 판매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전체의 약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전기차 판매 비중) 2023년 기준 중국 57.6%, 유럽 24.5%, 미국 11.5% 등 순의 점유율을 보임.
- (탄소중립을 앞세운 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은 IRA를 통해 2차전지 핵심광물 및 부품이 포함된 세액공제에 관한 조건을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 EU도 2023년 3월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통해 2030년까지 역내에서의 중국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 조치를 준비 중

2. 노사 동향

◆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론확산

- 지난 11. 9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각계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확산
- 경총 등 경제 6단체는 11. 13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노조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 경총 등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 붕괴, ▲불법파업 조장·확산, ▲산업현장 무법천지화를 야기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
 - 이에 경총 등 경제계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노사관계 파탄과 경제적 파국을 막아줄 것을 호소
- 주요 업종별 단체들도 11. 15 공동성명을 발표해 노조법 개악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를 밝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Ⅲ. 노동경제동향

[참고] 노조법 개악으로 인한 주요 업종별 피해와 우려

구분	주요 내용
건설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비 인상, 금리인상 리스크 등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불안·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추가적 비용을 발생 시킬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비용은 분양가 등에 반영될 수 밖에 없어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자동차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업종은 원하청간 중층적 분업구조로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및 파업, 원하청 근로자간 노노갈등 등 노사관계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조선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업종은 협력사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요구·파업으로 인한 인도지연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대내외 신인도 하락 불가피 ▶ 노조법 개정안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원하청 상생협력 분위기를 저해 하고 조선업종에 다시 혼란을 가중 시킬 것으로 우려
철강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업종은 24시간 연속공정이 필요한 만큼 노사관계 불안으로 생산이 멈추면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

-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 13 ‘최고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을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1. 9 ‘장관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 시사

◆ 고용부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편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

- 고용부는 지난 6~8월간 노·사·국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11. 13)

Ⅲ. 노동경제동향

- 설문조사 결과,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 응답보다 많았고,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 고용부는 금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부 업종·직종별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선택권 부여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방침
-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사 결과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실태가 확인됐고, 상당수 국민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동의하는 만큼(동의 46.4%, 비동의 29.8%)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
- 또한, 연장근로 개편 논의 시 지나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제한 등은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해 제도 변경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

-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해온 한국노총은 11. 13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
 -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노동자 대표성 인정’을 복귀 이유로 설명
 - 한국노총은 11. 11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할 경우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 표명
 - 대통령실은 11. 13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축인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는 입장 표명
-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으로 노동 법·제도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조직 내 최대 현안인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확보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
 - ※ 경사노위 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문제를 논의해온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는 2022. 12. 23 이후 논의 중단

Ⅲ. 노동경제동향

- 한편,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연구회’에서 논의중인 의제 등은 해당 안건이 ‘경사노위 논의 의제’로 채택돼야 하는 만큼 논의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2. 8 발족) :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노조의 투명한 조직운영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 논의

-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연구회(2. 9 발족) : 파견제도 선진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논의

○ 한국노총은 금번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 한국노총은 11. 17(금)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 대화 복귀 경과 등을 논의할계획

- 한국노총 내 대정부 투쟁을 주장하는 조직들은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중단 결정 당시 위원장에게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했을 뿐 복귀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반발

- 반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확보,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금 회복, 근로자 복지관 입주 문제 등 실리 확보를 위해 사회적 대화 복귀 등 정부와의 관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상당수 대두